

‘천혜의 비경’ 거문도, 역사문화 보고로 주목



여수 거문도 등대

여수시 최남단에 위치한 거문도가 명승과 문화 유산 등으로 ‘역사문화유산 관광의 섬’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실제로 거문도에는 지난 1979년 국가 명승으로 지정된 백도가 자리하고 있고, 지난 2023년에는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또 국가유산청 생생 국가유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1885 모든 역사는 거문도로 통한다’ 사업과 연계해 내년에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2026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거문도를 ‘섬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역사적 가치’를 보여주는 핵심 장소로 육성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역사 여행지로 각인시킨다는 방침이다.

로 탈바꿈된다.

1885년 영국군 접경 사건 이후 형성된 근대 항만·군사 시설 등 해양 근대 생활사의 흔적(구 삼산면 의사당, 해저통신시설 등)들이 남아 있다. 근대 역사 교육 현장으로 꾸며진다.

임병찬 순국터, 고두리영감 제단으로 구성된 복합 항일 유적으로 일제강점기 섬 주민들의 민족운동과 항일 저항 정신의 상징이다. 섬 민족저항형 유적지 연계 역사 교육 및 애국심 함양 투어가 마련된다.

거문도의 어민들이 어로 작업 시 부르는 노동요다. 지방 사투리가 그대로 남아 고유의 가락과 언어로 이뤄진 지역 공동체적 독특한 해양 문화다. 현지 전승 공연 및 체험, 어촌 문화 이해의 장으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거문도는 아름다운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격동의 근대사와 자주독립 정신이 깃든 소중한 국가유산의 보고다”며 “국가유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여수만의 차별화된 역사 관광 모델로 세계적인 섬 역사 체험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gwangnam.co.kr

‘여수 거문도 수월산 일원’ 국가유산청 명승 지정 쾌거 광복 80주년 항일유적 지정 등 섬 내 국가유산 다양화

4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8월 ‘거문도 항일유적’이 전남도 기념물로 지정됐으며, 지난달 17일에는 거문도 내 ‘여수 거문도 수월산 일원’까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명승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거문도 국가유산에 무형유산인 거문도 벗노래 등 역사·문화적 가치를 융합해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체류형 해양 역사문화 탐방 코스’를 개발, 더욱 깊이 있는 체험과 탐방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상징적 국가유산으로, 헤비 둉식물이 서식하는 무인군도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기암괴석의 절경으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며, 유람선을 활용한 해상 생태 탐방 코스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올창한 동백 숲과 기암괴석, 낙조 등 천혜의 해안 절경으로 유명하다. 거문도 등대 등 근대 해양사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으며, 거문도 등대, 관백정의 백도 조망 등 자연 치유·힐링 트레킹 코스

순천만국가정원 ‘산타가든’ 조성

대형트리·산타빌리지·산타버스 등 겨울 감성 선사

순천만국가정원이 겨울 낭만과 따뜻한 휴식의 무대로 꾸며진다.

4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만국가정원이 ‘바쁜 산타도 쉬어가는 산타가든’이라는 콘셉트로 정원 곳곳을 크리스마스 원더빌리지로 조성된다.

동문 입구를 시작으로, 호수정원 무대에는 높이 13m의 대형트리가 설치되며 산타가든의 중심 무대가 완성됐다.

이번에 설치된 대형트리는 서울 롯데타워 등 수도권 랜드마크로 설치됐던 프리미엄 트리로, 순천만국가정원에 최초로 도입된 사례다.

수도권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고품격 크리스마스 연출을 정원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달 중순에는 대형트리를 중심으로 ‘산타빌리지’가 들어선다.

크리스마스 과자, 장난감, 세계여행 등을 콘셉트로 공간을 구성해 관람객들이 마치 동화 속 마을에 들어온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꾸밀 예정이다.

정원의 주요 공간도 각기 다른 크리스마스 테마로 변신한다.

식물원 입구는 ‘레드 크리스마스’ 콘셉트로 꾸며지고, 시크릿 어드벤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체워져 공간마다 색다른 겨울

감성을 선사한다.

특히 테라피가든에서 크리스마스 한정판 디퓨저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고 있어, 체험객들에게 정원 속 힐링과 크리스마스의 설렘을 동시에 전하고 있다.

또 기존 애니메이션 퍼레이드에 활용됐던 관람차는 크리스마스 버전으로 새 단장한 ‘산타버스’로 운영될 예정이며, 폴로리스트와 협업한 크리스마스 회전목마도 새롭게 선보여 동화 같은 풍경을 더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프랑스가든과 낙우송길에는 조명이 더해져 12월의 밤을 더욱 따뜻하게 비추는 ‘나이트 산타가든’의 분위기가 연출된다.

오는 20부터 25일까지는 ‘산타가든 워크(가칭)’도 운영된다.

만들기 체험, 보물찾기, 참여형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크리스마스를 정원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축제의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산타가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정원 전체가 하나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공간으로 변하는 시도다”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겨울의 낭만과 따뜻한 휴식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박칠석 기자 256pk@gwangnam.co.kr

광양 ‘기초원료 중심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총력

전주기 생태계 기반 ‘K-배터리 핵심 도시’ 도약 박차

광양시가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통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4일 광양시에 따르면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가 지정 공모 계획’을 환영하며,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경쟁 심화와 전기차 개발 등 시장 변화 속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니켈, 리튬 등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해 국내 배터리 산업의 전주기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

을 밝혔다.

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항만·물류 인프라와 포스코그룹 중심의 이차전지 전주기 생태계가 집적된 지역이다.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외 원광제·전구체·양극재 생산·재활용으로 이어지는 기초원료 기반 전주기 체계를 갖추고 있어 산업통상부 지원 정책과 연계한 특화단지 추진 여건이 더욱 뚜렷하다.

시는 지난해부터 산업통상부와 국회,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이차전지 기초원료 중심 특화단지 추가 지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 이번 발표와 발맞춰 기업 투자 의향 확보, 전남도·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공동 대응, 정부

수요조사 신속 제출, 공모 대응 전답변 운영, 기업 협의체·협력체계 가동, R&D·인력양성·인프라 확충 계획 수립 등 특화단지 공모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오는 22일에는 전남도와 함께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 정책 방향과 지역 산업 전략을 공유하고, 산·학·연·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특화단지 지정의 필요성을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할 예정이다.

정인화 시장은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초원료 중심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다”며 “시는 국내에서 기초원료·소재·재활용 전주기 체계를 모두 갖춘 유일한 잠재 후보지로서 공모에 적극 참여해 특화단지 지정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jin@

곡성,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첫 딸기 수확

조상래 군수 등 현장 방문…청년농 격려·건의사항 청취

곡성군은 최근 입면 송전리에 위치한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첫 딸기를 수확하고 청년 농업인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군은 청년농의 안정적 농업 정착을 돋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총사업비 33억원을 투입해 스마트팜 6동 공사를 완료했으며, 6명의 청년농업인이 1인당 400평 규모의 온실을 임차해 딸기를 재배 중이다.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성과를 살펴보고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상래 곡성군수와 농정과장, 농협 관계자, 담당 공무원, 청년농 등 20여명이 함께 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스마트팜이 청년농들의 초기 영농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마련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청년농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견의 사항을 들으며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강조했다.

입주 청년농업인들은 “임대형 스마트팜 덕분에 초기 투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딸기 재배 기술을 체계적으로 익혀 곡성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임대형 스마트팜(온실)은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에게 월 1만원 임대료로 3년간 영농경험을 쌓게 해 향후 스마트팜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곡성군은 앞으로도 여량 강화를 위한 현장 컨설팅, 기술 교육, 판로 지원 등을 통해 청년농들이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순천만국가정원은 ‘바쁜 산타도 쉬어가는 산타가든’이라는 콘셉트로 크리스마스 원더빌리지로 조성된다.

2026년산 청정 고흥산 김 출하 생육 난관 극복…품질 회복 기대감

2026년산 청정 고흥산 김의 본격 출하를 시작했다.

고흥군은 전국 김 생산의 주산지로서 매년 우수한 품질의 김을 생산해 소비자와 유통업체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올해는 고흥군을 비롯한 전남 해역의 김 양식장에서 영양염류 부족과 황백화 현상으로 초기 생육에 어려움이 있었다.

황백화는 해양환경 변화로 김의 염록소가 감소하는 현상으로, 김생산자어민연합회 고흥지회와 지역 양식 어민들은 생육 환경 개선과 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대응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후 생육이 안정되면서 생산량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고흥산 김 위판가는 120kg 포대 기준 17만9900원~26만8000원(자난달 기준) 범위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안정적 가격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초기 생육 환경이 좋지 않아 우려가 있었지만, 양식 어민들의 철저한 관리와 노력으로 안정적인 출하가 이뤄지고 있다”며 “올해도 고흥 김이 전국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gwangnam.co.kr